

시설내 아동돌봄 적극 협력 저출산 극복

서기총 3차 실무회의, 기독교 단체와 적극 연대 및 현안 문제 논의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봉준 목사, 이하 서기총)는 10월 26일(목) 정동 달개비에서 '제3차 실무회의'를 갖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모든 기독교 단체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응기로 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인권위원장 안석문 목사의 인도로 공동회장 주요섭 목사의 기도 후 대표회장 김봉준 목사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요, 우리는 답을 알고 일하는 것이다"라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목사는 "영혼구원과 사회구원은 두 수레바퀴다. 어느 한 쪽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시대정신을 잘 읽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이어 공동회장 김용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조찬 후에는 실질적인 안건을 토의하고 결의했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현실을 진단했다. CTS다움세대본부부장 변장배 목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미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교회 시설을 활용하여 아동을 돌보는 것이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반 법개정이 이

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서기총은 교회 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11월 30일 안양 마벨리에 평촌점에서 개최되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11월 9일 용산 삼각지 역에서 열리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4차 NAP) 전면 개정 촉구대회'에서 서기총도 참여하기로 했다.

한장총, 종교개혁 기념주일 메시지

“개혁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종교개혁 506년을 맞아하며 2023년 종교개혁주일 대표회장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하 메시지 전문)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95개조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506년을 맞이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의 본질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며 우리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대신하거나 앞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넘어서



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그리스도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의 성경적 가르침을 굳건히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개혁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들(Reformed Churches)은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흘린 피땀 위에 세워졌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지나온 506년간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회 안에 스며든 기복주의, 성장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등

온갖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교회의 거룩성 회복과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구별하기 위해 개혁교회라 하였지만, 한 번에 개혁을 통해 완성된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을 멈추지 않는 진행형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는 한국교회는 지난해 10월 29일 종교개혁 주일을 앞둔 토요일밤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과 고독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속적이고 미신문화에 상업주의가 혼란된 오락문화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기억하여 지킴 종교개혁 정신을 새기는 건강한 개혁 문화를 만들어갑시다.

침례교 해외선교회 ‘제5회 FMB 선교포럼’ 개최

‘우리에게 다가온 이웃, 우리가 다가가야 할 이웃’ 주제로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이종성 목사, 이하 침례교) 해외선교회(이사장 문기태 목사, 회장 주민호 선교사, FMB)가 10월 16~17일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5회 FMB 선교포럼을 진행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웃, 우리가 다가가야 할 이웃’이란 주제로 열린 가운데 FMB 파송 선교사와 FMB 이사, 파송교회, 선교후원교회 목회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선교포럼은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의 국내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선교 다음세대 선교 등 선교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FMB 이사장 문기태 목사는 환영사에서 “매년 선교포럼을 진행하며 함께하는 선교의 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고무적”이라며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주님의 사명으로 따르며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번 선교포럼을 통해 다시 한 번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회예배는 FMB 주민호 회장의 사회로 FMB 이사 김종성 목사(부산침례교회)가 기도하고 이종성 총회장(상록수교회)이 히브리서 10:24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 돌아보자’ 제의의 설교 말씀을 선포했다.

이종성 총회장은 FMB에서 30년을 사역한 송장현, 이진재, 장인식, 최진출, 최종국 선교사에게 30년 근속패를 전달했고, FMB 분기대 이사장(장원침례교회)은 매년 선교포럼에 참석한 정명진 목사(지유침례교회)와 조대식 목사(신대인교회), 정인환 목사(신촌중앙교회), 김영재 목사(제주오라교회), 이관형 목사(조이폴교회), 이영은 목사(아름다운교회), 김용혁 원로목사(대전노은교회)에게 ‘함께하는 선교인 상’을 수여했다.

총회 총무 김일엽 목사가 격려사를, FMB 신감별 총무가 광고하고 김용혁 원로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원로목회자들 나라 위해 기도

원로목자교회, 수요일예배 기도의 불 활활

(사)한국원로목자총연합회(총재 엄신행 목사, 대표회장 문세광 목사) 신하 원로목자교회(담임 강발희 목사)가 주최하는 원로목자와 함께하는 예배에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넘쳐났다.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이 예배에는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를 초청, 말씀과 기도과 찬양

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소재 기독교연합회관 강당에서 드려진 예배는 장정국 목사의 사회로 고문 김홍대 목사의 대표기도, 이옥자 전도사의 성경봉독, 목자성가대의 찬양, 피아선 전인총회장 원종문 목사의 선교 순으로 진행됐다.



원 목사는 시편 51편 10절을 본문으로 한 ‘정직한 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구원 받은 우리의 몸은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다. 사람이 그 인격 속에 정직한 영(주님)을 모시고 내주하면 그 인격은 참된 성전이 된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가 그 인격을 경건하고 신성하게 유지해 나가면 성령의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예배는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총재 엄신행 목사의 인도로 개인과 가정, 교회와 성도, 나라와 민족, 원로목자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한편 원로목자교회는 매주 수요일 초교파적으로 예배를 드림은 물론 매일 12시를 기해 각자가 처한 가처에서 수요일예배 배가운동과 (사)한국원로목자총연합회를 위해 기도한다.

노인의 날, 쪽방촌 밥사랑·선물전달

월드뷰티핸즈, 독거어르신께 사랑의 마음 전달

소셜서비스 NGO (사)월드뷰티핸즈회(회장 최에스터, 신한대 K-뷰티학과 교수)와 (사)해돋는 마을(이사장 장한일, 신생평나무교회 목사) 공동주최, 고독생체로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는 K-뷰티소사아카데미연구소와 한국 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공동 주관하여 지난 10월 18일(수) 엘드림노인대학강당에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 초청 제2회 노인의 날 밥사랑 잔치와 선물전달식’을 갖고 정성껏 준비하여 섬겼다.

(사)해돋는 마을 이사장 장한일 목사는 “소외되고 외로운 어르신들께 정성이 가득한 맛있는 식사와 함께 사랑의 선물과 음악 재능기부를 통해 섬겨주신 모든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월드뷰티핸즈 회장 최에스터 교수는 “이번 사랑의 밥퍼와 함께 떡과 건강식품 등 사랑의 선물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어

르신분들께서 삶에 용기를 갖고 사시기를 바란다”라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Daddy Voice(단장 이승희, 안병길, 김지민, 정찬혁, 반주 김은덕)의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밝아 높으로 섬겼으며, 엘드림노인대학학장단의 찬양과 한기순 부반장(엘드림대학)의 성서 낭송 등 우울증과 치매예방을 위해 직접 참

여하는 다채로운 협력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별히 오혜경 위원장(대흥동주민자치위원회)과 최윤희 간사를 비롯한 박형근 찬양지역자, 구 훈 자원봉사단장 장민혁 사무총장(엘드림대학) 최세연 사무국장(해돋는마을) 최세진 영양사와 최원희 강사(엘드림노인대학)가 참석해 어르신들을 섬겼다.



가을밤, 성가·명곡·가곡의 향연 수놓아

‘킹스보이스 오페라컴퍼니’ 초청 교회창립 38주년 음악회

성민교회(담임 류재훈 목사)가 창립 38주년을 맞아 ‘킹스보이스 오페라컴퍼니’ 대표 김혜영)를 초청해 깊어가는 가을밤을 은혜로운 성가와 세계적인 명곡, 서정적인 우리 가곡의 향연으로 수놓았다.

지난 10월 15일(주일) 오후 7시 동 교회 특별무대에서 펼쳐진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김혜영, 바리톤 김지연, 바이올리스트 조아라, 피아니스트 김윤경·박사라·스페인 무용가 최민영이 출연해 출중한 기량으로 청중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이끌었다.

탈런트 이혜근의 사회와 해설로 막 올린 1부 연주회의 시작은 바이올리스트 조아라가 열었다. 그녀는 ‘차르다시민속곡’과



‘타이스의 명상곡’을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고 감미롭게 연주해 청중들을 명상으로 이끌었다.

이어 바리톤 김지연은 청중들의 기대대로 절제되고 감미로운 미성의 소리로 ‘당신 이 제 곁에 계신다면’, ‘봄날에 틀 열창해 뜨거운 바스락바락을 받았다. 선율과 성악에 이어 무대에 선 스페인 무용가 최민영은 ‘바리 아이의 통곡’이라는 독무를 은혜로운 몸짓으로 표현해 큰 찬사를 받았다.

계속된 무대는 소프라노 김혜영이 장식했다. 그녀는 테크닉과 기교를 두루 겸비한 환상의 콤파니 피아니스트 김윤경과의 협연으로 헨델의 ‘기뻐하라’와 ‘내 주는 살아 계시니’를 불러 큰 은혜를 끼쳤다.

아신대, 제45회 ACTS 선교대회 개최

‘ACTS의 선교회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아신대학교(ACTS, 총장 정홍열)는 ‘ACTS의 선교회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5일(수)부터 26일(목)까지 제45회 ACTS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ACTS 선교대회는 아신대학교의 설립자인 1976년 9월 제1회 아세아선교의 날을 시작으로 45회째 이어오고 있다.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선교부스에서는 10개 선교단체에서 각 단체의 선교활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이어졌으며 대회를 여는 선교헌신예배는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또한 이날 예배에서는 30여 년간 아신대 국제교육원 외국인학생들을 후원하며 은퇴 이후에도 외국인 사역자들과 선교협력을 계속해오고 있는 원주제일교회 김용상 원로목사에게 공로패도 전달했다.

선교대회와 관련 정홍열 총장은 “오늘은 다락방, 내일은 아세아! 라는 세계선교의 비전이 이번 ACTS 선교대회를 통해 구체화하며 드러나길 바란다”며 “선교회년을 향해 나가는 아신대 공동체가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을 한자게 내딛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 생명의 말씀 ■



김 병 선 목사
• 방화교회 담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불신앙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 철저한 신앙관을 가지고 영적 중심을 잘 잡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관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먼저 예

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에도 환경과 물질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의뢰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나? 철저한 신앙관은 바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6:4-9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

이것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읽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유다의 심판에 대한 경고

사 3:1~12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띠에 띠고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의뢰하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관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스가라서 14장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천하에 왕이 되시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일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님일 것이며”라고 분명하게 홀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고도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물질관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물질관으로 인하여 그 신앙이 병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에 매이고 재물에 잡혀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삼키고 삼켰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눅 6:38의 말씀을 언제나 음미하며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남을 돕고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관이 되어야 합니다. 남에 기대하는 기쁨

보다 남에게 기대하지 아니하므로 얻는 기쁨을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겠다는 인생관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불행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8-9절의 유대인 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공의롭게 살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살이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신앙관으로 중심을 잡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질의 관리자로서 돕고 주는 자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바른 인생관을 중심으로 잡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 정

한국신학아카데미 김균진 원장



원로 신학자들이 해암신학연구소 자문위원을 역임한 강근환·김경재·김균진·김영한·정일웅·오성종 박사 등이 지난 10월 16일자로 ‘한국신학아카데미’를 발족했다. 원장은 김균진 박사가 맡는다. 해암신학연구소는 故 해암이장식 박사가 창립했으며, 2014년 가을부터 2023년 여름까지 운영됐다.

전문인선교대상 시상식



세계CEO전문인선교회(WCPM, 대표 박형렬 목사)가 11월 4일(토) 오후 2시 여천도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23 자랑스러운 전문인선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수상자는 고종욱 총재(한국사회시민단체연합, 소망교회 은퇴장로), 김일량 대표(테안방주연전, 한국장로회총연합회 전임회장), 심재두 박사(한국국가회 이사장, 알바니아 의료선교사) 등이다.

대학총장조찬기도회 가져



대학총장조찬기도회(회장 김상식 성결대 총장)가 지난 10월 27일(금)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웨스트채플에서 각 대학 크리스천 총장이 모인 가운데 나라와 민족 및 ‘한국교회의 영성 회복과 부흥’, ‘한국 기독교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예배 및 기도회를 가졌다.

2024 목회전략세미나



미래교회전략연구소(대표 문재진 소장)가 2024 목회전략세미나를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5개의 교회에서 개최한다. 목회전략세미나의 개최 장소로는 서울 연산교회(6일), 청주 서원경교회(7일), 광주남문교회(9일), 전주샘물교회(23일), 포항 중앙교회(28일) 등이다. 강사로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 마상욱 목사(AI연구소) 등이 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중앙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 해킹과 조작 가능하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선관위의 6,400대 장비 가운데 317대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외부로부터의 해킹과 그로 인한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요청으로 시스템의 취약성 여부, 해킹 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3개 분야를, 국제 해킹 조직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통해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중앙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인데, 상당히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것을 보면, 국민들이 중요하게 주권 행사한 것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거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행사한 주권과 그 결과 값이 달라진다면 이는 중대한 실책으로, 그에 대한 보완과 방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 각 분야에서 점검한 것을 살펴보면, 첫째 시스템 취약성이 드러났는데, 투표시스템에서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해킹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외부에서 관리할 수 있고 사전 투표자도 미투표자로 만들어 ‘이중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정상적 유권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靑印 선관위)과 사인(私印 투표소) 파일을 절취(竊取)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도 인쇄 가능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비(非)인자 PC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일종의 사전 투표인 ‘선상(船上 투표)’의 경우 암호 해독이 가능하여 특정 유권자의 기표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개표 시스템에서도 ‘개표 시스템’ 내용이 안전장치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나, 보안 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 가능하다고 한다. 또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하여 투표 결과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도 내부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하여야 하나, 망 분리 보안장치가 미흡하여 내부 중요망에 외부의 침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거기에서 보안이 풀리면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까지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는 해킹 사고 후속 보안 강화 조치 점검인데, 최근 2년간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중앙선관위에 통보했으나 그에 대한 사전 인지(認知)

나 대응이 전무(全無)했다고 한다. 지난 2021년 북한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대외비 문건 및 업무 자료가 유출된 사례도 있다.

세 번째로는 선관위가 운영 중인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실태 점검에서, 합동보안점검팀이 31개 항목에 대하여 재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1.5점을 받은 정도로 취약점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북한 등 외부 침투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공격을 해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혀졌다.

그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난 해 대선 전까지 거대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심지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조차도 선거 시스템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

한국은 내년에 아주 중요한 총선을 앞둔 가운데 있는데, 이는 국운(國運)이 걸린 정도로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 여당, 야당,

중앙선관위 누구라 할 것 없이, 국민의 주권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반대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주권을 절도하는 데 방임·동조하는 것으로 국가 반역행위와 다르지 않다.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단순히 정치 문제로 간주하여 모른척하지 말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시스템 관리의 미비나 혹은 의도된 개입에 의하여 변질된다면 국민의 신성한 선택은 허망하게 사라지게 된다.

아무리 좋은 국가 정체성과 선거 관련 법률 체계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의 민의(民意)로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예상되는 부정과 조작에 대비하여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온전한 국가로 지켜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한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를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혼계를 받게 하라”(잠 1:3)

스포츠 선교회 걷기동우회 모임안내



- 11시00분 : 예배 및 기도회
- 13시00분 : 점심식사
- 14시30분 : 서해안 맨발 걷기
- 16시30분 : 차와 은혜 나누기
- 17시30분 : 식사 후 다시 목회 현장으로



- 일시 : 2023년 11월 2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서산성전
충청남도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EL: 041-667-3731
- 대상 :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로서 교단을 사랑하고 교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
- 문의 : 정영진 목사 010-3590-3156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 건강한교회세우기 컨퍼런스 개최

부부와 부모자녀 간 다양한 갈등 진단 해소 ... 제주에서 3박4일 부부상담 프로그램 진행

제주지방회 한마음교회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 제주한마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에서는 지난 10월 19일(목) 한국교회 실천신학연구학회(이사장 황병준 박사) 제26차 건강한교회세우기 컨퍼

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 강사로 나선 안병찬 목사(순복음장아름다운교회/Ph.D)는 한국교회 신앙의 가정들이 이 시대에 겪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6년 이상 교회 성도부부 3~4 가정으로 구성된 부부행복여행팀을 꾸려서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와서 부부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각 가정의 행복지수와 문제점들을 정밀진단하고 성경적인 회복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시켜 줌으로서 건강한 가정세우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선 김건수 목사(제주한마음교회/Ph.D)는 전국과 교회와 가정은 하나이기에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도 든든히 할 수 있다면서 실제 겪은 사례와 간증을 통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각 가정에서 부부와 부모자녀 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들을 진단하고 해소시켜 줌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나 가면 교회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례회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

강원지방회

강원지방회(회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10월 19일(목) 오전 11시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에 위치한 강릉웨이저교회(담임 김형준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성백달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전장길 목사의 대표기도, 김순기 목사의 성경봉독, 엄기소 목사의 롬 8:6-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생각의 통로'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박규희 목사의 헌금기도, 박순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를 통해 회무를 처리한 후 교

제의 시간을 갖고, 더욱 힘써 사역할 것을 다짐한 후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목양지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조정화 목사)는 지난 10월 19일(목) 오전 11시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22번길16에 위치한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에서 10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은혜 목사(순복음은혜와사랑의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재부 안병섭 목사(순복음장성교회)의 대표기도, 직전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민 16:12-14 말씀을 본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 가나안땅은 풍요로워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척박한 땅으로 풍성하지도 않았고 비도 오지 않은 땅으로 하나님이 이룬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하여 예



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지칭하며 그곳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어려웠으로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애굽 땅은 비옥하나 자유가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 내려 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우리의 목양지 역시 힘들지만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섬길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이

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양지가 세상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즉,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목양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규 목사(순복음은혜충만교회)의 헌금기도와 총무 조은혜 목사의 광고 후 지방회장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월례회에서 회무 처리를 한 뒤 정영진 목사가 정성으로 준비한 점심식사를 후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철원 고석정에서 야유회 갖고 충성된 목회 다짐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김진원 목사)는 지난 10월 12일(목)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철원 고석정에서 야유회를 갖고 심신의 피로를 풀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지방회장 김진원 목사(예수리교회)의 일일 소개와 전임회장 이창모 목사(인천국제순복음교회)의 지도 후 야유회를 위해 출발했다.

임원들이 준비한 간식을 가지고 관광버스에 오면 후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해 장어 구이로 오찬을 나누고 철원군 가을 꽃밭 축제가 열리는 고석정을 찾았다.

맨드라미, 백일홍, 코스모스, 국기아, 핑크 물리 등 만개한 꽃밭을 구경하고 강동열차에 앉아 1.2km 꽃밭 사이를 누비는 기분이 새로웠다.

이후 예수이름교회 카페로 이동해 맛있는 파스타와 필라프를 먹고, 성전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구미에서 야유회 갖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끽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허만운 목사)는 지난 10월 30일(월) 구미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송모공원(前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모여서 예배로 야유회를 시작하였고 박정희 생가 근처 박정희 동상과 코스모스꽃밭을 감상하며 산책에 나섰다.

이어 구미 주천양교회로 이동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주천양교회와 진영감 목사(주천양교회 담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점심식사로 풍성한 일식코스요리를 먹고 금요산으로 이동해 케이블카를 타고 금



요산의 명소인 대혜폭포에 갔다. 대혜폭포에서 휴식을 갖고 교제를 나누며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후에는 내려와서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하여 맛있는 추어탕과 썸밥을 먹은 후 아쉬운 인사를 뒤로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향했다.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2023년 부흥사회 영남동지역 부흥성회 열려

지역복음화와 민족의 구원 위해 부흥사들 사명 되새겨

예하성 부흥사회

예하성 부흥사회(회장 김기진 목사)는 지난 10월 22일(주일)부터 25일(수)까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양순복음교회(담임 황용식 목사)에서 2023년 부흥사회 영남동지역 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코로나 이후 예배의 온전한 회복과 지역복음화를 통한 나라와 민족의 구

원을 위해 부흥사들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고 더욱 말씀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부흥성회는 직전총회장 신재영 목사(비롯 엄기설 목사, 김기진 목사, 조길수 목사) 등을 강사로 4일간 매일저녁 7시에 부흥사회 회원들과 지방회 회원들이 각각 순서를 맡아 섬기며 은혜롭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운데 계속되었다.



북핵 저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저지 및 교권회복을 위해 기도

2023년 제10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사단법인)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병완 목사)는 2023년 제10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지난 10월 16일(월) 오전 7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길 소재 수철리장로교회(담임 정대범 목사)에서 개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산지역복음화를 위해, 북핵 저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저지를 위해, 교권회복을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이정팔 목사(보회 상임회장, 택민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율봉한 목사(새남산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정대범 목사(수철리장로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정목사는 마 27:46 말씀을 본문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고, 오늘도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일에 아산시 420여 교회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하자 목사(하늘문교회)의 헌금기도, 기독교포럼대표 김원진 목사(이내중앙교회)의 축도로 1부예배를 마쳤다.

회)의 축도로 1부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는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택민교회)의 사회로 아산시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배방중앙교회)의 환영인사로 시작되었다.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는 "맑은 시냇물 소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새들의 소리가 들리는 마치 어린 시절의 고향교회와 같은 정겹고 포근한 아름다운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기에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며, 이른 시간 기도회로 함께 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환영한다"고 했다.

3부 기도회는 주제별 기도순서로 이어졌다. 1) 민족의 복음화와 나라를 위한 기도



은식 목사(중앙비전교회), 2) 아산시 발전과 복음화와 420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황창익 목사(온양순복음중앙교회), 3) 경찰복음화를 위하여 조창훈 목사(경찰인재개발원교회), 4) 세계평화를 위하여 한상문 장로(온양

온전감리교회)의 기도와 전체 합심기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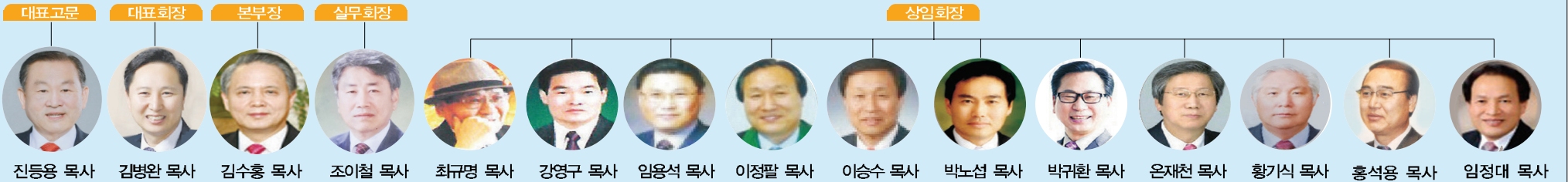
이어서 사무총장 이진희 목사(주님의제자교회)의 광고에 이어 사진 촬영이 있은 후, 수철리장로교회의 사모님과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제11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장소인 아산중앙교회(임용석 목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제10차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가운데 마쳤다.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 대표교문** 진동용 목사
- 고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운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연용희 목사, 이두영 목사, 임기석 목사, 신상우 목사
-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홍문표(국회의원), 김태흠(충남도지사), 강훈식(국회의원), 박경규(아산시장), 김종오(아산경찰서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박성기(U1대 교수), 박하식(전 삼성교 교장)
-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 본부장** 김수홍 목사
-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 공동회장** 진동용 목사, 노선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순현 목사, 임용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 지도위원** 박차영 목사, 박관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규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구 목사
- 부회장**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장현원 목사, 정병환 목사, 윤돈상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곽길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청환 목사, 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홍규 목사, 고영기 목사, 박성화 목사, 장종우 목사, 정진학 목사
- 사무국장** 이진희 목사
- 상임총무**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김준권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안상욱 목사, 안준호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완 목사
- 후원회 회장** 박희종 장로
- 후원회**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울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미래목회포럼 종교개혁 506주년 성명

종교개혁 506주년 성명발표...한국교회 초대교회로 회귀해야

미래목회포럼은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성경대로 살고, 끊임없이 기도 하고, 잃어버린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해 제2의 종교 개혁운동의 중심에 서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죄로나 우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뜻대가 되고,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끊고 화합과 일치의 기교 역할을 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미래목회포럼 종교개혁 506주년 성명서 전문이다>

비람 길 한국교회, 초대교회로 회귀해야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뜨겁게 떠오른 종교개혁운동이 506주년을 맞았다. 부패한 종교 권력에 맞서 오직 진리의 목소리만을 외친 종교개혁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전반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하지만 500여 년이 흐르는 세월동안 종교개혁운동은 서서히 변색되고 말았다. 오히려 종세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으며, 새로운 종교개혁운동이 절실한 요구되는 상황에 처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도로 부흥성장을 이룬 한국교회마저 500여 년 전 종세 유럽교회와 꼭 닮아 있다. 솔라 피데(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Sola Gratia,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Soli Deo Gloria, 오직 주님의 영광) 등 종교 개혁의 5대 강령은 머릿속으로만 되새길 뿐, 행동으



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수없이 회개와 각성을 반복적으로 부르짖지만, 굳어진 메아리뿐이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비분필적인 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고, 그렇게 쌓은 모래성은 담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졌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교회는 기복신앙 위주의 믿음이 과했음에도 이상하리만큼 갑작스러운 부흥과 성장을 이뤘,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흔히 이야기하듯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믿음의 척도가 한 끼 풀 벗겨지자 곳곳서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교회의 성장과 비례해 목회자들의 바르지 못한 권위주의가 팽배해져 갔고, 소위만 이웃을 향한 나눔의 공간은 비었는데, 예배당의 외형적 화려함과 웅장함을 위한 재정은 넘쳐났다. 누구보다 도덕적이며 윤리적이어야 할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사회적 지

탄을 받는 지경에 처했다.

말 그대로 말문과 바벨에 길들여져 500여 년 전 개혁운동을 퇴색시키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교회의 환경 자체를 바꿔 놓았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는 기복이나 구멍이 뚫려 물이 새고 있는 한국교회를 더욱 빠르게 침몰시키는 직격탄이 됐다. 종세형교회는 물론 대형교회까지 성도수가 급감하면서 당장 20~30년 후의 미래마저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 회귀해야 한다. 더 이상 물질과 권력, 명예를 탐하지 말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 두 손에 가득 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권과 교파주의와 개교회주의, 세속주의,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모두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제2의 종교개혁운동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야 한다.

대표 이득규 목사, 이사장 이상대 목사.

군선교위 향로봉대대서 말씀·기도로 위문

강원안보지킴이 봉사단과 쫄면 만들어 주며 사랑으로 섬겨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 부위원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10월 24일(화) 단풍잎으로 온 산야가 물들어 가는 가을철 가장 오지이며 험지인 향로봉대대를 방문하고 경계근무에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을 위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이 날은 강원안보지킴이 봉사단과 함께 장병들에게 군부대에서 맛보기 어려운 짬뽕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별미 쫄면을 만들어 식사시간에 나누어 주며 즐거운 한 때를 같이 했다. 강원안보지킴이봉사단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식사를 제공하며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다.

장병들과 함께 드린 예배에서 박순용 목사는 대하 32: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히스기야왕이 철저한 준비로 10배가 넘는 적군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승리를 할 수 있고 군복무 기간동안을 장병들이 인생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길 당부하고 장병들을 축복했다.

부대장은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 오지 동부전선 최전



방까지 방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귀한 음식으로 장병들에게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했다.

아울러 사랑의 마음으로 후원해주신 예하성 교단과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님과 경기중앙지병회(회장 이은승 목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것을 부탁했다. 이날 위문단은 장병들의 따뜻한 환심을 받으며 부대를 내려와 귀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국가 정체성 세우기 논평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8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에서 그리고 2023년 9월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사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조직선동으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심지어 2023년 6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반(反)국가세력’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국가 정체성 위기를 감지한 데서 나온 우국(憂國)적 발언으로 보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다른 어느 전임 보수 대통령처럼 훗날 시위대에 밀리거나 처량하게 산에 올라가 눈물짓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의 자유주의 정신을 오늘날 계승하고 있는 지도자로 평가하고 싶다.

그런데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정부 여당은 야당에게 17.15%로 완패하였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7%포인트 앞섰던 강서구 미국지역에서 이번엔 16%포인트나 뒤졌다. 이번 선거의 교훈은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의 좋은 정책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그의 국정운영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준다.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직에 앉혀줬던 사례가 그동안 장관 후보자 5명의 낙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가 이끄는 자유 대한민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해야하고 겸손해야 한다.

지난 10.11 강서보결선전 완회에 나타난 민심의 소리를 경계하듯 목소리로 모아 가 정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과 대화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 러한 내년 총선에 이겨 자유대한민국 정체성 살리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이어 나갈 수 있다. 살롱나비는 윤 대통령의 국가 정체성을 살리려는 국정기조를 지지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도록 하기 위한 우리 조연과 견해를 천명하고자 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의 중북 주사파 지적은 용기있는 지적이다.

다음은 지난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견해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권을 획득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립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천명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매우 용

“윤석열 대통령의 중북 주사파를 자유민주주의의 적대세력으로 지적은 용기있는 지적이다”

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실상 전체주의의 국가라는 점 또한 마찬가지다. 중북과 소련, 북한은 전체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그렇게 지적하는데 “절 지난 공산전체주의의 세력”이란 말 말고는 지칭할 언어가 없다.

3. 지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반(反)헌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헌법의 핵심인 “자유”라는 용어를 “인민”으로 바꾸고자 하였으나 자유시민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유리하게 비핵금지 구역을 남쪽으로 많이 허용함으로써 한국군의 안보를 취약(군사분계선에 있어 평양까지는 140킬로, 서울까지 거리가 40킬로인데 비핵금지구역 20킬로 설정으로 북한의 입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평강이 제한하게 만들었다. 2020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는 물론 DMZ 내 사격, 해상무인부 공격원 살해, 북한의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은 군사합의 위반이다. 그리고 김영재 하명으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제정하였다. 지난해 2022년 북한은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및 인근 군사훈련지대 선언 등으로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23년 9월에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정이 나왔다. 이 법은 2020년 6월 북한 김영재이 대북 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남북 이벤트에 목을 매고 있던 문정권이 김영재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위헌적인 법을 만든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이에 대해 “국가행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 매우 중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아당인 더불어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장의 발언, “2023년 대한민국에는 공산 전체주의라는 것도 보도 못한 유명이 떠돌고 있다”는 발언은 “공산주의는 과거의 유물이 되고 반공 운운은 철 지난 것”이라는 뜻

으로 우리 사회에 적절할 명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젤렌스키(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폄하하여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시켜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총출했다”고 했다. 이재명의 관점은 양비론의 탈을 쓴 러시아 옹호론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로서 구 공산권 핵심 국가이며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전체주의적으로 통치하는 나라 편을 들었던 것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좌파정치인 사이에 통용되는 반국가적 언어다.

4. 진정한 민주화 인사들은 중북주사파 민주화 인사들과 결별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진정한 민주화 인사들은 중북주사파 민주화 인사들과 결별해야 한다. 한국사회 민주화 1980년대 과정에서 유신 독재와 신군부 독재체제 청산과정에서 민주화인사들이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나 중북주사파는 걸려나지 못하고, 같은 민주화 투사라는 이름 아래 함께 공존했었다. 우리 사회 분열기상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자기가 좌익(左翼) 활동하는 줄 모르면서 좌익 노릇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좌파·진보가 곧 정의(正義)라고 자 동입력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만큼 우리 사회에 주사파들에 의하여 사회 전반의 좌경화(左傾化)가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이룬 후 우리나라는 극렬한 간첩 활동만 아니면 좌익에 대해 광장하 관용하는 사회가 됐다. 전체적으로 좌·우파가 극단으로 갈리고 있다. 전 한양대 교수 리영희와 소설가 조정래는 한국 지식인들과 40~50대의 좌경화를 부추긴 대표적인 인물이다. 리영희는 중국 사회주의 정권을 찬양했고, 조정래는 국내 남로당의 빨치산 활동을 미화했다. 전 서울대 교수 박낙정이 주도한 창작자비행의 1966년 장간호와 1968년 복간호, 창비는 김수영, 고은, 조정래 같은 좌파 작가는 키워주고 서정주, 이문열 같은 우파 작가는 격하하거나 무시하는 편향성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선일보에서 인터뷰에서 “반국가세력 겨냥한尹 대통령의 이념전쟁은 용기있고 위로된다”고 한 이문열, 안무정 중에도 건국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5년 대자

원 39%보다 큰 차이로 나왔다. 승부처인 수도권 2030뿐 아니라 중간지대 충청권도 견제론이 우세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거에 진 여당은 쇄신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힘은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부총장이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정체성을 세우기와 더불어 인적 쇄신과 더불어 자신의 각종 정책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방향으로 정부 스타일을 보다 세련되게 해나가야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 보여주었던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를 재개하여 언론,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규제 개혁 등 여러 개혁과제 등 현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 러한 내년 4.10 총선 후 식물 정부를 면하고 개혁을 과감히 펼쳐나갈 수 있다. 이를 집행해 나갈 새로운 인재풀을 충분히 가동해야 한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와 정책과 스타일이 변해야 한다. 내년 총선 후보 공천은 위에서의 공천이 아니라 지역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이래서의 공천인 경선으로 참신한 후보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7.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정체성을 세우며 이념을 넘어서는 이웃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19일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취임 후 첫 ‘월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는 좌파든 합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反)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있다. 중북주사파와는 결별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위해 무엇보다 자유 진보 세력은 작은 의견 차이와 갈등은 절로 큰 차원에서 마음을 모아 대동단결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좌우 이념의 대립각이 너무 날카로와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 신앙적 가치의 인식자가 되었으면 한다. 진보와 보수 세력이 구호나 깃발이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는 화해(和解)된 믿음과 가치가 우리 사회에 더그럽게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말살하는 주체사상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한국교회가 줄 수 있는 가치관은 옹생하고 관대하며 조화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이웃 사랑의 정신이다. 이웃 사랑은 좌우 이념을 넘어선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능력이다.

2023년 10월 29일
살롱을 꿈꾸는 나비행동

아신신대원, 2024년도 신입생 모집

한국과 세계교회 미래를 짊어질 인재 양성

아신대학교 대학원(이하 ACTS)에서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를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한다.

ACTS는 1974년 아세아 복음화라는 비전을 품고 아세아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특별한 대학이다. 2024년은 ACTS가 개교 50주년(현년)을 맞아 지난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해로,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 한국과 세계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기독교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최고의 대학원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ACTS는 2024학년도 전기모집을 통해 일반대학원과 5개의 특수대학원(신학, 선교, 교육, 상담,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에서 총 28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대학원은 박사과정으로 25명의 신입생을 선

발하며,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에 트랙제(목회, 선교, 교육, 상담트랙)를 도입하여 목회현장별로 전문화된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전형 지원자격도 대폭 확대하였다.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한 문학석사(신학) 학위과정도 신학대학원 안에 개설되어 있으며,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은 2개의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융합전공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또한 ACTS는 해외 및 원거리 거주자를 위하여 △교육대학원은 방학중 계절제 수업진행, △선교대학원은 온라인위주 석사학위과정 운영, △상담대학원은 하이브리드(온라인+오프라인)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양한 수업형태를 제공하고 있다.

ACTS 대학원 입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신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월드비전, ‘ME(미)확인 프로젝트’ 시작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ME(미)확인 프로젝트’ 캠페인을 시작한다.

‘ME(미)확인 프로젝트’ 캠페인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점검해보고, 서로의 감정을 고민을 나누면서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ME’와 ‘미(미)’의 중의적 의미를 활용하여 나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을 뜻하며, 매년 약 2,600명에 달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보호연장 강화 적용으로 아

동이 원할 경우 24세까지 시설에 있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정부 지원도 강화되고 기업들을 통한 경제적 지원은 늘어났지만 심리정서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월드비전은 심리정서지원뿐 아니라, 전국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사회로 이끌어내고 더욱 존중하고 다양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오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전국의 약 13,000명(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월드비전 홈페이지 및 캠페인 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기도

지금 세상에서는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죽고 사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둠의 영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세트전도는 최첨단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전도보다도 탁월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말씀을 단져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낸 다음, 영접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케 하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방법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영접받고 자기 이름, 전화번호, 생일, 주소까지 알려주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목격할 때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전부가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전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에 전도 능력자를 훈련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최고의 능력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열 열매주시 주님께 감사

한 달에 적어도 한 명은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일 년이 지나도 한 명도 전도 못하는 해가 많아지자 내 자신에게 실망되어 기도하던 중에 자옥불구멍이 속에서 자신의 다섯 형제들 지옥에 오지 않게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뜨거운 나사로의 손가락에 한 방울의 물을 찍어 자기 허를 시원케 해달라는 지옥 장면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왕을 다시 세워 쫓아내지 못한 신앙을 가진 나대신 불구멍이 속 부자를 구원해줬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갔을까를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나도 이제 불구멍이에서 건져준 자와 같이 전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그리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전도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식사하던 식당 주인 부부, 새벽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 아파트 상가의 부동산 주인, 슈퍼마켓 주인, 목욕탕 손님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불리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신앙고백과 결신을 받아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족세트전도 집회에서 배운 대로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교회 마스크전도왕 김동일 은퇴목사



도너패밀리 소모임 4년 만에 재개

유가족 30여 명, 서로의 아픔 나누며 위로

지난 10월 14일, 서울시청의 시민청 워크숍룸에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재시령의장기증운동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도너패밀리’ 소모임을 4년 만에 재개한 것이다.

이날 소모임 참석을 위해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을 찾은 김기성 씨(남, 65세)는 지난 2012년, 당시 19살이던 아들 탄휘 군을 ‘뇌사’로 떠나보냈다.

2010년 직장을 퇴직하고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원주로 귀농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김 씨는 그곳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도와주던 아내와 아들 덕분에 초보 농사꾼의 고된 생활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다.

땅을 일구고나 여념이 없던 2월 말, 김 씨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탄휘 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탄휘 군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를 판정받았다.

2012년 3월 17일, 뜻다른 청춘이었던 열아홉 소년



탄휘 군은 간과 각막을 기증하며 세상에 깊은 감동을 남겼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김 씨 부부는 이후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

한동안 사람들을 등진 채 농사일에만 매달렸고, 김 씨의 아내는 일 년간 한국을 떠나 있을 만큼 가족 모두에게 괴로운 시간이 계속됐다. 그러던 2014년,

강원도 영월에서 진행된 도너패밀리 소모임을 찾은 김 씨 부부는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14일, 4년 만에 다시 소모임에 참석한 김기성 씨 부부는 같은 아픔을 경험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30여 명과 사별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눴다.

월간목회 2023년 11월호

『월간목회』는 9월호부터 12월호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오늘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9월호의 ‘존립’과 10월호의 ‘지침’이라는 주제에 이어 11월호와 12월호에서는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외적 도전들과 내적 도전들이 무엇이며,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다룬다.

특집 교회를 향한 도전, 그리고 응전 중에서

목회의 일면지는 언제나 목회자 자신이다. 무엇보다 목회자의 기도가 중요하다. 거센 세속화에 맞서는 대안은 오직 세상보다 더 뜨거운 기도의 불이다. 또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순수함으로 목회자가 먼저 말씀에 은혜받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시대 성도들이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비본질적이고 형식적인 가치를 때문이다. 지금은 새로운 것들을 할 때가 아니라 이미 있던 평범한 것

들을 더욱 비범하게 해야 할 때로, 과감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목회에 있어서 유일한 문제는 목회자 자신이며, 유일한 해결책도 목회자 자신일 것이다.

02-534-7196-8 mokhoi1976@naver.com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놀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송용석 교수님 임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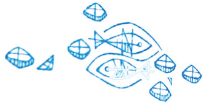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새바람을 일으키는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실 때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라는 격언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다시 새겨 보면 하늘이 돕는 것 사람들의 힘이 아닌 전능자의 도우심도 공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늘(하나님)도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을 돕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소포클레스는 “스스로 돕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도 힘을 빌려주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력 없이 원하는 것을 비란다면 헛수고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이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공짜는 아닙니다. 받는 사람들은 되갚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갚아야 하고, 특별히 결국 그 혜택을 받는 이들의 후손들이라도 빚을 떠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상고해 봅니다. 신앙원리로 봅니다. 때에 따라서 성도들에

게 선물을 받습니다. 조건 없이 주시지만 목회자로서 저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 했는가를 돌아봅니다. 그분을 위하여 목회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못하고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빚으로 여겨서 이후에라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공짜는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포장한 뇌물은 아주 위험한 공짜(?)입니다. 후에 아주 많이 갚아야 하는 위험한 물건이기에 조심할 뿐더러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도 값비싼 것이므로 아예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주십니다. 은혜라고 불리는 것인데 인생들이 반드시 갚아야 하는 죄값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그 진리를 믿는 이들을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일입니다. 구원(救援)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엡 2:8-9)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의교회 권사

질그릇 속의 천국

저기 저 홀로 있는 작은 새 한 마리.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에 잠기고...
어둠 속의 북두칠성 바라보며
길을 묻는다.

사람 속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기에...
가진 것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기에...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던
그 순간이 내겐 축복이었다.
같이요, 진리요, 생명인 분을 만났고,
마음에 불던 그 바람은 이제 멈췄다.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되신
예수님 들어오시니 나는 교회가 되고,
심령은 만개하여 꽃빛의 천국이 되고,
작은 들꽃들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만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는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의 자유함이
내 것이 되어 푸른 창공을 나른다.

한 폭의 그림 속에서
새롭게 빛어진 내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하시니
어찌 성령이 일하심이 아니라 할 것인가!!



질그릇에 담긴 만발한 꽃(고후 4:7)은 예수생명 가득한 기쁨을 노래한다. 한 폭의 그림 속에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다.

사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2017년 03.06 중국 관영매체 CCTV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또한 '주한미군 철출해도 된다' 고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간 해온 말들이다. 섬뜩해지고 모골이 송연해지는 말들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태연자약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다.

심장이 발칵발칵해지는 말들인데도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때부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온 말들이 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는 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하겠다' 고 했다.

민주당은 안보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전쟁이나, 평화나' 고 했다. 그러면서 북 미사일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극단적 친일' 이라고 매도했다. 이런 사고로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까? 북한은 대놓고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하기로 삼고 있다.

지난해 '국가 핵 무력 완성' 을 선언하며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 한데 이어 올 9월에는 '핵무기 고도화' 를 헌법에 명시까지 했다. 김정은은 우리 계통대 타격을 상정한 훈련에서 '남반부 영토 점령' 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군사 지휘 거점과 군항, 비행장 등 혼란 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곳에 동시다발적 타격을 지시' 하기도 했다. 김정은이 이전 비핵화 가언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노골적 침략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는 '북한을 계속 억압해야 하느냐' 며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했다. 북한의 한 해 총생산량이 우리 국방비에 못 미치는 반면, 우리는 한미동맹에 세계 6위 군사력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으니 제재와 압박을 완화하라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이런 말도 했다. '핵을 제외하면 북한에 밀리지 않는다' 며 같은 주장을 했다.

전쟁을 하는 데 핵을 제외한다고?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핵을 제외하고 전쟁을 한다는 건 궤변이다. 핵을 빼놓고 어떻게 전쟁의 승패를 얘기할 수 있나. 북한은 대놓고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인데.. 엉터리 같은 9.19군사합의를 보는 것만 같은 느낌이다.

좌파정부 집권동안 국민은 분열됐고, 한국군은 골

병이 들었으며 '가짜 평화놀음' 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은 거의 실종단계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북한을 억압하라. 북한 GDP 보다 한국 국방비가 많다. 9.19군사합의로 남북간 군사충돌이 줄어들었다' 고 했다. 과연 그럴까? 9.19 군사합의로 남북이 비무장지대 GP를 11개씩 동수로 줄였지만 애초에 북한 GP 숫자는 한국군의 세 배에 가까웠다. 항공 정찰도 한국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데도 완전 금지시켰다. 북한군에게 남침대로를 활짝 열어준 합의가 9.19군사합의다. 9.19 군사합의로 북한이 오히려 고도화되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 위험해졌는데도 호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가짜지구 땅굴 길이는 500-800km로 서울 지하철 총길이 343km 보다 더 길다. 북한이 세계 제일의 땅굴 기술로 하미스를 도왔다' 게 정설이다. 그런 북한이 얼마나 많은 땅굴을 남한을 향하여 파놓았는지 모를 일이다. 북한이 남침시에 미군 파병에 미국인들이 한도 끝도 없이 찬성할까? 찬성한다는 응답이 2017년엔 63%였는데 지금은 50%로 주저앉았다.

지난 5년간 9.19군사합의를 해놓고도 합의를 위반하고 백령도 연평도 등을 겨냥한 해안 포문을 총 3400 회 개방한 사실도 국회에서 밝혀졌다. 포문 개방 합의에는 못하게 했는데, 그 뜻은 언제라도 포격을 가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이다. 과거 정권이 만든 환경이다.

그러면서도 군사충돌이 줄었다고, 핵을 제외하면 우리가 낫다고 김정은은 핵 무력을 강조하는 데 우리가 핵을 제외한다고? 그런 전쟁도 있나. 북한의 GDP 보다 한국의 군사비가 더 많으니 북한을 압박 말라고? 가짜지구나 하미스의 GDP는 이스라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지만 하미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2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한 후에 한 공격이다. 수십년간 전쟁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는 북한. '가짜 평화 놀음' 에 빠져서야 국가를 지킬 수 있을까?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 뿐이라” (렘 16:19)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한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2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2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후 1시(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1월 3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역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6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병 목
총 무 목사 정 진 균